

## 에너지安定供給 및 環境汚染防止

동력자원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'90년대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 공급기반 구축과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동자부는 이를 위해 산유국의 꿈을 실현할 대륙붕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, 에너지를 적게 쓰는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, 전국 송유관 건설·액화천연가스(LNG) 배관망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.

### 자원확보체제 강화

'90년대 중반 동해안 대륙붕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에 경제성 여부를 확인한다. 연내에 평가정 2~3개를 더뚫어 추가매장량을 확인하게 되면, 내년부터 가스田 개발설계에 착수한다. 현재 시추자료를 분석해온 미국 익스플로이테크社에 따르면 추가매장량 확인이 유망하나 가스생산국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

또 석유·유연탄 등 전략자원의 20~30%를 조달한다는 목표로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. 북방정책과 연계시켜 공산권도 개발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킨다. 아울러 석유파동에 대비, 비축기지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.

### 에너지가격 안정

석유가격 및 전기요금을 현수준에서 안정시킨다. 그러나 연탄가격은 광원의 임금인상을 한 자리 숫자로 억제하더라도 약간의 인상요인이

생길 것이며, 이를 정부·업계·가계가 분담토록 한다.

### 환경오염 방지

현재 정제능력의 4%에 불과한 저유황유 생산을 위한 탈황시설을 '92년까지 20%로 확대한다. 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전국 LNG배관망 건설에 착수한다.

공해방지효과가 큰 지역난방방식을 수도권 신도시에 적용하며, 현재 3개 공단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을 전국 65개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. 이를 위해 올해 장기기본계획을 세우고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(가칭) 제정을 검토한다. 수도권 발전소 연료를 LNG로 바꾼다.

### 송유관 건설

유류수송에 따른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난을 덜기 위해 전국 송유관 건설에 나선다. 송유관사업을 추진할 대한송유관공사를 발족시키고, 瑞山~天安간 송유관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서울~인천간 송유관 건설에 착수하여 '92년 2월까지 준공한다. 서울~여수, 서울~온산간 송유관 건설도 연내에 착수하여 '93년 말까지 완공한다.

송유관 건설에 필요한 4,500억원은 석유사업기금에서 51%를 조달하고, 나머지를 5개 정유사와 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이 지분에 따라 분담한다.